

| 이슈페이퍼 2022-04 |

다문화 영유아의 이중언어 사용 영향 요인 및 지원 방안

박은정

1. 배경 및 문제제기
 2. 다문화 영유아의 이중언어 사용과 부모 요인
 3. 다문화 영유아의 이중언어 사용과 외부 지원 서비스 요인
 4. 정책제언
- 참고문헌

다문화 영유아의 이중언어 사용 영향 요인 및 지원 방안*

박은정 부연구위원

◆◆ 요약 ◆◆

- 이중언어 지원 사업 실시에도 불구하고 다문화가족 내 이중언어 상황이 개선되지 못하고 있으며, 영유아기 시기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이 필요한 상황임.
- 이에 본고는 다문화 영유아의 이중언어 사용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요인을 부모 요인과 외부 지원 서비스 요인으로 구분하여 분석하고, 분석 결과를 토대로 다문화가족의 이중언어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지원 방안을 제시함.
- 부모 요인으로 이주민 부모의 가정 내 사용 언어, 부모의 자녀양육 정서, 부모의 역할 효능감, 이중언어 습득이 자녀에 미치는 영향 정도, 이중언어 및 이중문화에 대한 태도, 자녀의 모국어 습득을 위한 노력 정도, 자녀 양육지지 자원이 이중언어 사용 등 자녀의 가정 내 일상언어별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임.
- 외부 지원 서비스 요인으로는 어린이집 및 유치원의 이중언어 관련 안내 및 지도, 이중언어 지원 서비스, 모국어 지원 서비스가 이중언어 사용 등 자녀의 가정 내 일상언어별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임.
- 연구를 토대로 다문화가족 및 교육보육기관의 이중언어 인식 제고, 출신국별 자조모임을 활용한 지원 사업 실시, 다문화가족의 이중언어 사용을 위한 맞춤형 지원, 이중언어 지원 관련 정보 접근성 제고 방안을 제언함.

1

배경 및 문제제기

- 2010년에 수립된 「제1차 다문화가족정책기본계획」에 이중언어 교육 관련 지원이 명시 되었으며, 이후 여성가족부와 교육부를 중심으로 이중언어 지원 사업이 실시되었으나

* 본고는 「박은정·문무경·윤지연·임동선·Weng-Feng Lai(2021). 다문화 영유아의 이중언어 발달을 위한 부모 역량 강화 지원 방안. 육아정책연구소」의 내용 중 일부를 발췌·보완하여 작성한 것임.

(정해숙 외, 2014), 다문화가족 내 이중언어 상황은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 2018년 다문화가족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2년에 비해 이주민 부모의 언어에 대한 자녀의 긍정적 인식 정도가 낮아졌으며, 이주민 부모의 언어 사용 격려 정도도 낮아진 것으로 나타남(최운정 외, 2019).
- ◆ 따라서 이중언어 지원사업을 확대하였음에도 다문화가족 내 이중언어 환경이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현상에 대한 점검이 요구됨.
- 특히, 영유아기 시기에 이중언어 발달을 촉진할 수 있도록 다문화가족의 이중언어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함.
 - ◆ 가족 형성 초기인 영유아기는 가정 내 언어의 기틀을 구성하는 결정적 시기이며 (Abdelilah-Bauer, 2016), 다문화 영유아는 자연스럽게 이중언어에 노출됨에 따라 동시적 이중언어 습득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이중언어 가족환경 조성이 중요함.
 - ◆ 다문화가족의 강점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영유아를 둔 부모의 인식 및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 및 교육이 요구됨.
- 따라서 본고는 다문화 영유아의 이중언어 사용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요인을 부모 요인과 외부 지원 서비스 요인으로 구분하여 분석하고, 분석 결과를 토대로 다문화가족의 이중언어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지원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¹⁾

2

다문화 영유아의 이중언어 사용과 부모 요인

가. 부모의 사용 언어

- 가정 내에서 다문화 영유아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언어는 이주민 부모의 가정 내 사용 언어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
 - ◆ 이주민 부모는 가정 내에서 주로 한국어를 사용하고 가끔씩 모국어를 사용한다는

1) 육아정책연구소에서 2021년에 실시한 “다문화가족·영유아 이중언어 실태 조사”의 분석결과를 토대로 영향요인을 도출하였음. 해당 설문조사는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중에 만3세~만6세 이하의 미취학 자녀를 둔 결혼이민자 및 귀화자 531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음.

응답이 48.8%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모국어와 한국어를 반반씩 사용한다는 응답이 25.6%로 나타났다.

- ◆ 가정 내에서 자녀의 일상언어를 분석한 결과, 이주민 부모가 주로 한국어를 사용할 경우 자녀도 일상적으로 주로 한국어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주민 부모가 주로 모국어를 사용하거나 모국어만 사용할 경우보다 이중언어(모국어와 한국어를 반반씩 사용)를 사용할 경우 자녀가 이중언어를 사용하는 비율이 63.9%로 가장 높게 나타남.
- ◆ 즉, 부모가 가정 내에서 적절히 이중언어를 사용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다문화 영유아의 이중언어 발달에 있어서 중요한 요인을 확인함.

〈표 1〉 이주민 부모의 가정 내 사용언어

단위: %, 명

구분	한국어만 사용	주로 한국어, 가끔 모국어 사용	모국어와 한국어를 반반씩 사용	주로 모국어, 한국어 가끔 사용	모국어만 사용	제3의 언어	계	(수)
전체	13.4(71)	48.8(259)	25.6(136)	7.3(39)	2.3(12)	2.6(14)	100.0	(531)
자녀의 일상언어								
한국어만 사용	32.1(54)	54.2(91)	8.9(15)	3.6(6)	0.6(1)	0.6(1)	100.0	(168)
주로 한국어 사용	5.3(14)	60.8(160)	26.6(70)	5.7(15)	0.8(2)	0.8(2)	100.0	(263)
이중언어 사용	4.2(3)	6.9(5)	63.9(46)	15.3(11)	6.9(5)	2.8(2)	100.0	(72)
기타	0.0(0)	10.7(3)	17.9(5)	25.0(7)	14.3(4)	32.1(9)	100.0	(28)
χ^2	319.009***							

주: 자녀의 일상언어-기타: 주로 모국어 사용, 모국어만 사용, 제3의 언어 사용을 포함.

자료: 박은정·문무경·윤지연·임동선·Weng-Feng Lai(2021). 다문화 영유아의 이중언어 발달을 위한 부모 역량강화 지원 방안. 육아정책연구소. p.126. 〈표 IV-2-2〉의 일부를 발췌함.

*** $p < .001$

나. 부모의 심리·정서적 요인

- 이주민 부모의 자녀양육 정서 요인 중에 긍정적 정서 요인에서는 2항목, 부정적 정서 요인에서는 1항목에서 다문화 영유아의 가정 내 일상언어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임.
- ◆ 부모의 긍정적 자녀양육 정서가 높을 경우 자녀가 일상적으로 가정 내에서 이중언어

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녀가 한국어만 사용하는 집단에서 부모의 긍정적 정서가 낮게 나타남.

- ◆ 부모의 부정적 자녀양육 정서에서 ‘자녀가 귀찮고 짜증스러울 때가 많다’는 항목은 2.7점으로 다른 항목보다 낮은 부정적 정서를 보였으나, 이중언어를 사용할 경우 2.4점(5점 만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남.
- ◆ 이는 부모 상담이나 교육 또는 양육 지원을 통해서 자녀 양육에서 긍정적 정서를 느낄 수 있도록 부모를 지원하는 것이 다문화 영유아의 이중언어 발달에서 중요함을 의미함.

〈표 2〉 부모의 자녀양육 정서

단위: 점

구분	긍정적 정서		부정적 정서			
	①	②	③	④	⑤	⑥
전체	4.3	4.3	3.3	2.7	3.2	3.0
자녀의 일상언어						
한국어만 사용	4.2	4.1	3.4	2.8	3.3	3.2
주로 한국어 사용	4.3	4.3	3.3	2.6	3.2	3.0
이중언어 사용	4.5	4.4	3.3	2.4	3.2	2.8
기타	4.3	4.3	3.2	2.8	3.6	3.0
<i>F</i>	2.849*	4.012**	0.561	2.915*	1.146	1.347

- 주: 1) ① 자녀를 키우는 것은 행복한 일이다.
 ② 자녀를 키우면서 내 자신도 성장하고 있음을 느낀다.
 ③ 자녀 양육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혼란스러울 때가 많다.
 ④ 자녀가 귀찮고 짜증스러울 때가 많다.
 ⑤ 자녀가 장래에 잘 성장할지 걱정된다.
 ⑥ 자녀에게 남들만큼 잘해주지 못해 미안한 생각이 든다.
 2) 자녀의 일상언어-기타: 주로 모국어 사용, 모국어만 사용, 제3의 언어 사용을 포함.
 3) 5점 만점

자료: 박은정 외(2021). 다문화 영유아의 이중언어 발달을 위한 부모 역량강화 지원 방안. 육아정책연구소. p.143. 〈표 IV-3-3〉의 일부를 발췌함.

* $p < .05$, ** $p < .01$

- 이민자 부모의 역할 효능감 척도 7개 문항 중에서 ‘자녀에 대한 경제적 지원’ 항목을 제외한 6개 항목에서 자녀의 일상언어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임.
- ◆ 자녀가 이중언어를 사용하는 경우 부모 역할 효능감 평균이 5점 만점에 3.8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자녀가 한국어를 사용하는 경우 3.5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남.

- ◆ 항목별로 살펴보면, 자녀에 대한 정서적지지, 일반적인 자녀 양육 지식, 자녀의 생활 태도 및 습관 지도에서 가장 뚜렷한 평균 차이를 보였으며, 학업/공부 지도, 자녀와의 소통 항목에서도 유의미한 차이를 보임.
- ◆ 자녀에 대한 정서적 지지 항목의 평균이 3.8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자녀가 이중언어를 사용할 경우 4.1점으로 매우 높게 나타남.
- ◆ 즉, 자녀가 이중언어를 사용하는 집단에서 부모 역할 효능감이 유의미하게 높음을 확인하였음.

〈표 3〉 부모 역할 효능감

구분	단위: 점							전체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전체	3.7	3.8	3.6	3.7	3.5	3.6	3.7	3.6
자녀의 일상언어								
한국어만 사용	3.5	3.6	3.4	3.5	3.3	3.5	3.5	3.5
주로 한국어 사용	3.7	3.9	3.6	3.8	3.5	3.6	3.7	3.7
이중언어 사용	3.9	4.1	3.9	3.9	3.7	3.7	3.7	3.8
기타	3.9	3.9	3.6	4.0	3.6	3.6	3.5	3.7
<i>F</i>	2.827*	5.879***	5.658***	6.295***	4.201**	1.628	2.138	5.676***

주: 1) ① 자녀와의 소통, ② 자녀에 대한 정서적지지, ③ 일반적인 자녀 양육 지식, ④ 자녀의 생활태도 및 습관 지도, ⑤ 학업/공부 지도, ⑥ 자녀에 대한 경제적 지원, ⑦ 자녀에게 필요한 정보 습득

2) Cronbach's α =.892(7개 항목)

3) 자녀의 일상언어-기타: 주로 모국어 사용, 모국어만 사용, 제3의 언어 사용을 포함.

4) 5점 만점

자료: 박은정 외(2021), 다문화 영유아의 이중언어 발달을 위한 부모 역량강화 지원 방안. 육아정책연구소. p.145. 〈표 IV-3-4〉의 일부를 발췌함.

* $p < .05$, ** $p < .01$, *** $p < .001$

다. 부모의 인식 및 태도 요인

- 자녀의 이중언어 습득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질문 문항을 긍정적 영향과 부정적 영향 문항으로 구분하여 살펴본 결과, 부정적 영향에 대한 2개 문항에서 자녀의 일상언어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며, 긍정적 영향에서는 한 문항에서만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음.

- ◆ 부모-자녀 간에 친밀한 관계 형성에 자녀의 이중언어가 도움이 된다는 항목이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며, 자녀가 가정 내에서 이중언어를 사용하거나 모국어를 주로 사용하는 집단에서 자녀의 이중언어 습득의 긍정적인 영향을 높이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 ◆ 자녀가 한국어만 사용하는 집단은 자녀가 이중언어를 사용하는 집단에 비해서 이중언어의 부정적 영향을 더 염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 따라서 부모 교육이나 부모 상담을 통한 이중언어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자녀의 이중언어 사용을 위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음.

〈표 4〉 이중언어 습득이 자녀에 미치는 영향 정도

단위: 점

구분	긍정적 영향				부정적 영향		
	부모 자녀 사이에 친밀한 관계 형성	장래 진학 및 취업에서 장점으로 작용	자녀의 긍정적 다문화 정체성	평균 (긍정적 영향)	자녀 언어발달에 줄지 않은 영향	자녀의 한국 사회 적응에 부정적	평균 (부정적 영향)
전체	4.3	4.3	4.2	4.3	2.1	2.1	2.1
자녀의 일상언어							
한국어만 사용	4.1	4.3	4.0	4.1	2.3	2.3	2.3
주로 한국어 사용	4.3	4.3	4.2	4.3	2.1	2.0	2.1
이중언어 사용	4.6	4.4	4.3	4.4	1.5	1.7	1.6
기타	4.6	4.4	4.3	4.5	2.2	2.1	2.2
<i>F</i>	6.471***	0.608	1.831	3.033*	8.089***	4.004**	6.685***

주: 1) 자녀의 일상언어-기타: 주로 모국어 사용, 모국어만 사용, 제3의 언어 사용을 포함.

2) 5점 만점

자료: 박은정 외(2021). 다문화 영유아의 이중언어 발달을 위한 부모 역량강화 지원 방안. 육아정책연구소. p.148. 〈표 IV-3-6〉의 일부를 발췌함.

* $p < .05$, ** $p < .01$, *** $p < .001$

■ 이중언어 및 이중문화에 대한 태도가 어떠한지를 자녀, 가족, 본인으로 구분하여 응답하도록 한 결과, 자녀와 가족의 이중언어 및 이중문화에 대한 태도가 자녀의 일상언어별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임.

- ◆ 대상별 전체 평균을 살펴보면, 자녀와 이주민 부모의 이중언어 및 이중문화에 대한 태도는 4.3점으로 상당히 높게 나타났으며, 가족의 태도는 3.7점으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

- ◆ 가족의 이중언어 및 이중문화에 대한 태도가 자녀의 가정 내 일상언어별로 가장 뚜렷한 차이를 보였음. 자녀가 이중언어를 사용하는 집단에서 4.0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자녀가 한국어만 사용하는 집단에서는 3.4점에 그쳤음.
- ◆ 이는 한국인 배우자 및 가족들의 이중언어 및 이중문화에 대한 태도가 다문화 영유아의 이중언어 습득에 매우 중요한 영향요인임을 보여주는 결과임. 따라서 한국 출신 배우자 및 한국 가족에 대한 이중언어 인식 교육을 통해 이중언어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함.

〈표 5〉 이중언어 및 이중문화에 대한 태도

단위: 점

구분	자녀의 이중언어 및 이중문화에 대한 태도	가족의 이중언어 및 이중문화에 대한 태도	결혼이민자(본인)의 이중언어 및 이중문화에 대한 태도	전체
전체	4.3	3.7	4.3	4.0
자녀의 일상언어				
한국어만 사용	4.2	3.4	4.2	3.8
주로 한국어 사용	4.3	3.7	4.3	4.0
이중언어 사용	4.5	4.0	4.3	4.2
기타	4.4	3.9	4.4	4.2
<i>F</i>	2.639*	12.198***	0.299	6.995***

주: 1) 자녀의 일상언어-기타: 주로 모국어 사용, 모국어만 사용, 제3의 언어 사용을 포함.

2) 5점 만점

자료: 박은정 외(2021). 다문화 영유아의 이중언어 발달을 위한 부모 역량강화 지원 방안. 육아정책연구소. p.151~152. 〈표 IV-3-8〉의 일부를 발췌함.

* $p < .05$, *** $p < .001$

라. 부모의 노력 및 자원

- 자녀가 이주민 부모의 모국어를 습득할 수 있도록 어느 정도 노력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 질문한 결과, 부모의 노력에 따라 자녀의 일상언어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F = 40.112^{***}$).²⁾

- ◆ 부모가 직접 일상적으로 모국어를 지도하기보다 사용을 지지하고 사용 기회를 제공

2) 자녀의 모국어 습득을 위한 노력 정도에 대한 척도는 일상적인 모국어 지도 노력(6문항)과 모국어 사용을 지지하고 사용 기회를 제공하는 노력(4문항)으로 구분하였음.

하는 노력 정도가 모든 집단에서 높게 나타났음.

- ◆ 자녀가 가정 내에서 한국어만 사용하는 집단에서 부모의 자녀 모국어 습득을 위한 노력 정도가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주로 한국어를 사용하는 집단에서 낮게 나타남. 반면, 자녀가 이중언어를 사용하는 집단의 부모가 자녀의 모국어 습득을 위해 가장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 자녀가 가정 내에서 한국어만 사용하는 집단의 경우, 특히 부모의 일상적인 모국어 지도 노력이 2.9점으로 상당히 낮았으며, 지지 및 기회 제공 노력과도 가장 큰 차이를 보임.
- ◆ 부모의 인식 개선뿐만 아니라 부모가 실질적인 노력을 기울일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함.

[그림 1] 자녀의 모국어 습득을 위한 노력 정도

단위: 점



- 주: 1) 일상적인 모국어 지도 노력: ①나는 일상생활에서 모국어를 사용하여 자녀와 이야기하려고 노력한다. ②나는 자녀에게 모국의 방송 및 영상을 보여준다. ③나는 자녀에게 모국어로 된 책을 읽어준다. ④나는 자녀에게 모국어로 된 노래를 들려준다. ⑤나는 자녀와 함께 모국어로 다양한 놀이를 한다. ⑥나는 학습지나 낱말카드 등을 활용하여 자녀에게 모국어를 가르친다.(Cronbach's α =.917)
- 2) 지지 및 기회제공 노력: ①나와 배우자는 자녀가 나의 모국어를 사용할 때 칭찬하고 격려한다. ②나는 자녀가 함께 모국 출신 사람들을 만나 모국어로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진다. ③나는 자녀가 모국어를 사용하여 모국의 가족과 자주 통화하도록 한다. ④나와 배우자는 기회가 될 때마다 자녀와 함께 모국을 방문한다.(Cronbach's α =.771)
- 3) 자녀의 일상언어-기타: 주로 모국어 사용, 모국어만 사용, 제3의 언어 사용을 포함.
- 4) 5점 만점

자료: 박은정 외(2021). 다문화 영유아의 이중언어 발달을 위한 부모 역량강화 지원 방안. 육아정책연구소. p.155~156의 내용을 활용하여 재작성함.

- 부모가 양육에 있어서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주변 자원을 가지고 있는지는 부모 역할 수행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요인이므로, 이를 파악한 결과 다문화 부모의 자녀 양육지지 자원이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배우자의 자녀 양육 참여 적극성 요인만 자녀의 가정 내 언어별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임.
 - ◆ 3개 항목에서 3점미만으로 나타났으며, 배우자의 자녀 양육 참여 적극성만 3.5점임.
 - ◆ 자녀의 가정 내 일상언어별 결과를 살펴보면, 자녀가 이중언어를 사용하는 집단에서 배우자의 자녀 양육 참여 적극성이 3.9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남.
 - ◆ 즉, 배우자의 자녀 양육 참여 적극성이 자녀의 이중언어 사용과 관련성이 있음을 유추할 수 있음. 따라서 한국 출신 배우자가 자녀 양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

〈표 6〉 자녀 양육지지 자원

단위: 점

구분	배우자의 자녀 양육 참여 적극성	자녀 돌봄에 도움 제공하는 가족 또는 친구/이웃	긴급돌봄 필요 시 이용 가능한 기관 및 서비스	지역 내에 유치원, 어린이집 외에 자녀의 이용 시설 및 서비스의 충분성	전체
전체	3.5	2.7	2.7	2.7	2.9
자녀의 일상언어					
한국어만 사용	3.5	2.5	2.6	2.7	2.8
주로 한국어 사용	3.5	2.7	2.7	2.7	2.9
이중언어 사용	3.9	2.8	2.5	2.8	3.0
기타	3.1	2.8	3.1	3.0	3.0
<i>F</i>	4.019**	1.716	2.158	0.755	1.468

주: 1) 자녀의 일상언어-기타: 주로 모국어 사용, 모국어만 사용, 제3의 언어 사용을 포함.

2) 5점 만점

자료: 박은정 외(2021), 다문화 영유아의 이중언어 발달을 위한 부모 역량강화 지원 방안. 육아정책연구소. p.146~147. 〈표 IV-3-5〉의 일부를 발췌함.

** $p < .01$

3

다문화 영유아의 이중언어 사용과 외부 지원 서비스 요인

가. 교육·보육 기관의 지원 서비스

- 어린이집 및 유치원은 영유아 자녀를 둔 부모에게 주요한 지원 기관이며, 교사들의 이중언어 관련 안내 및 지도를 경험했는지 여부에 따라 다문화 영유아의 가정 내 언어 사용에서도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남.
- ◆ 어린이집 및 유치원에서 이중언어에 대해 전혀 대화를 해본 적이 없다는 응답이 63.4%로 3분의 2정도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한국어만 사용하거나 주로 한국어만 사용하는 집단에서 높게 나타남.
- ◆ 자녀가 이중언어를 사용하는 집단의 경우,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이중언어 사용에 대한 지원은 없었으나, 긍정적인 대화를 나누어본 경험이 있는 비율이 28.8%로 다른 집단에 비해서 높게 나타남.
- ◆ 즉, 어린이집 및 유치원에서 이중언어 관련 안내 및 지도를 받은 경험이 다문화 영유아의 가정 내 이중언어 사용과도 분명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음을 유추할 수 있으나, 실제로 어린이집 및 유치원에서 이중언어에 대한 안내 및 지도는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 따라서 교육·보육 기관 종사자에 대한 이중언어 관련 교육 및 서비스 연계가 매우 필요한 상황임을 알 수 있음.

〈표 7〉 어린이집 및 유치원의 이중언어 관련 안내 및 지도

단위: %, 명

구분	이중언어에 대한 대화 경험 없음	한국어만 사용 권유	이중언어 사용에 대해 긍정적이나 지원 없음	가정 내 자녀와의 이중언어 사용 방법 지도	이중언어 교육 및 서비스에 대한 정보 제공 및 연계	기타	계	(수)
전체	63.4(327)	2.9(15)	20.2(104)	8.1(42)	4.7(24)	0.8(4)	100.0	(516)
자녀의 일상언어								
한국어만 사용	68.7(112)	2.5(4)	17.8(29)	8.0(13)	3.1(5)	0.0(0)	100.0	(163)
주로 한국어 사용	66.2(172)	1.5(4)	19.6(51)	7.3(19)	5.0(13)	0.4(1)	100.0	(260)

구분	이중언어에 대한 대화 경험 없음	한국어만 사용 권유	이중언어 사용에 대해 긍정적이나 지원 없음	가정 내 자녀와의 이중언어 사용 방법 지도	이중언어 교육 및 서비스에 대한 정보 제공 및 연계	기타	계	(수)
이중언어 사용	48.5(32)	4.5(3)	28.8(19)	9.1(6)	4.5(3)	4.5(3)	100.0	(66)
기타	40.7(11)	14.8(4)	18.5(5)	14.8(4)	11.1(3)	0.0(0)	100.0	(27)
χ^2	43.313***							

주: 자녀의 일상언어-기타: 주로 모국어 사용, 모국어만 사용, 제3의 언어 사용을 포함.

자료: 박은정 외(2021), 다문화 영유아의 이중언어 발달을 위한 부모 역량강화 지원 방안. 육아정책연구소. p.160. <표 IV-4-3>의 일부를 발췌함.

*** $p < .001$

나. 이중언어 및 모국어 지원 서비스

- 이주민 부모에게 이중언어 지원 서비스를 이용했는지 여부를 질문한 결과, 이중언어 관련 부모교육, 부모 상담, 가족구성원 이중언어 인식 개선 교육, 이중언어 관련 자조모임 서비스 이용 여부에서 자녀의 가정 내 일상언어별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임.
 - ◆ 이중언어 관련 부모 교육을 이용한 응답자가 54.6%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이중언어 관련 부모 상담이 43.9%, 이중언어 관련 자조모임이 37.5%, 가족구성원 이중언어 인식 개선 교육이 27.1% 순으로 나타남.
 - ◆ 이중언어 관련 부모 교육과 부모 상담을 가장 많이 이용한 집단은 자녀가 가정 내에서 주로 한국어를 사용하는 집단인 것으로 나타남.
 - ◆ 가족구성원 이중언어 인식 개선교육과 이중언어 관련 자조모임 서비스에서는 자녀가 가정 내에서 이중언어를 사용하는 집단이 가장 많이 이용하였음.
 - ◆ 자녀가 가정 내에서 한국어만 사용하는 집단은 모든 이중언어 지원 서비스 이용 경험 비율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남.
 - ◆ 따라서 다양한 이중언어 지원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하며, 특히 가족구성원 대상 교육과 자조모임을 집중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음.

〈표 8〉 이중언어 지원 서비스 이용 여부

단위: 점

구분	이중언어 관련 부모 상담		이중언어 관련 부모 교육		가족구성원 이중언어 인식 개선 교육		이중언어 관련 자조모임		이중언어 부모-자녀 상호작용	
	이용함	미이용	이용함	미이용	이용함	미이용	이용함	미이용	이용함	미이용
전체	43.9 (233)	56.1 (298)	54.6 (290)	45.4 (241)	27.1 (144)	72.9 (387)	37.5 (199)	62.5 (332)	2.8 (15)	97.2 (516)
자녀의 일상언어										
한국어만 사용	33.9 (57)	66.1 (111)	42.9 (72)	57.1 (96)	18.5 (31)	81.5 (137)	27.4 (46)	72.6 (122)	2.4 (4)	97.6 (164)
주로 한국어 사용	51.7 (136)	48.3 (127)	59.3 (156)	40.7 (107)	30.4 (80)	69.6 (183)	42.2 (111)	57.8 (152)	3.0 (8)	97.0 (255)
이중언어 사용	41.7 (30)	58.3 (42)	62.5 (45)	37.5 (27)	34.7 (25)	65.3 (47)	43.1 (31)	56.9 (41)	2.8(2)	97.2 (70)
기타	35.7 (10)	64.3 (18)	60.7 (17)	39.3 (11)	28.6 (8)	71.4 (20)	39.3 (11)	60.7 (17)	3.6 (1)	96.4 (27)
χ^2	14.207**		13.941**		9.969*		10.813*		0.223	

주: 자녀의 일상언어-기타: 주로 모국어 사용, 모국어만 사용, 제3의 언어 사용을 포함.

자료: 박은정 외(2021), 다문화 영유아의 이중언어 발달을 위한 부모 역량강화 지원 방안. 육아정책연구소. p.163. 〈표 IV-4-4〉의 일부를 발췌함.

* $p < .05$, ** $p < .01$

■ 이주민 부모에게 자녀 관련 모국어 지원 서비스 이용 경험을 질문한 결과, 집에서 활용할 수 있는 모국어 교재 제공 서비스, 부모-자녀가 함께하는 프로그램(모국어로 동화 읽어주기·동요 배우기, 음식 만들기 등), 자녀 대상 모국어 수업의 서비스 이용 경험 여부에서 자녀의 가정 내 일상언어별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임.

- ◆ 부모-자녀가 함께하는 프로그램의 이용 경험 비율이 44.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집에서 활용할 수 있는 모국어 교재 제공 서비스가 41.1%, 자녀 대상 모국어 수업이 31.6% 순으로 나타남.
- ◆ 자녀가 가정 내에서 주로 한국어를 사용하는 집단이 집에서 활용할 수 있는 모국어 교재 제공 서비스와 자녀 대상 모국어 수업 경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음.
- ◆ 자녀가 가정 내에서 이중언어를 사용하는 집단은 부모-자녀가 함께하는 프로그램의 이용 비율이 가장 높았음.
- ◆ 자녀가 가정 내에서 한국어만 사용하는 집단의 경우 모든 모국어 지원 서비스 이용

경험 비율이 가장 낮게 나타남.

- ◆ 따라서 다문화 영유아가 가정 내에서 자연스럽게 이중언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부모-자녀가 함께 활동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나 교재교구 개발이 필요함.

〈표 9〉모국어 지원 서비스 이용 여부

단위: 점

구분	집에서 활용할 수 있는 모국어 교재 (전자책 포함) 제공 서비스		부모-자녀가 함께하는 프로그램		자녀 대상 모국어 수업		기타	
	이용함	미이용	이용함	미이용	이용함	미이용	이용함	미이용
전체	41.1 (218)	58.9 (313)	44.4 (236)	55.6 (295)	31.6 (168)	68.4 (363)	2.1 (11)	97.9 (520)
자녀의 일상언어								
한국어만 사용	33.3 (56)	66.7 (112)	29.8 (50)	70.2 (118)	23.8 (40)	76.2 (128)	1.2 (2)	98.8 (166)
주로 한국어 사용	49.0 (129)	51.0 (134)	51.3 (135)	48.7 (128)	38.0 (100)	62.0 (163)	1.9 (5)	98.1 (258)
이중언어 사용	31.9 (23)	68.1 (49)	52.8 (38)	47.2 (34)	29.2 (21)	70.8 (51)	5.6 (4)	94.4 (68)
기타	35.7 (10)	64.3 (18)	46.4 (13)	53.6 (15)	25.0 (7)	75.0 (21)	0.0 (0)	100.0 (28)
χ^2	13.885**		21.789***		10.491*		5.581	

주: 자녀의 일상언어-기타: 주로 모국어 사용, 모국어만 사용, 제3의 언어 사용을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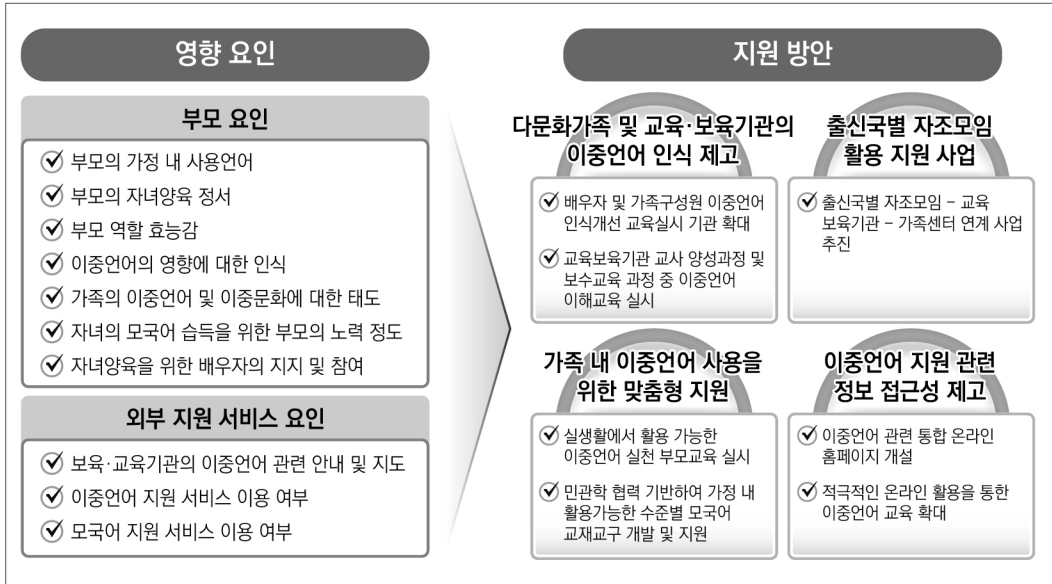
자료: 박은정 외(2021). 다문화 영유아의 이중언어 발달을 위한 부모 역량강화 지원 방안. 육아정책연구소. p.168. 〈표 IV-4-9〉의 일부를 발췌함.

* $p < .05$, ** $p < .01$

4 정책제언

- 지금까지 다문화 영유아의 가정 내 이중언어 사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다문화 영유아의 이중언어 발달을 위한 지원 방안을 제시하면 다음 〈그림 2〉와 같음.

[그림 2] 다문화 영유아의 이중언어 사용을 위한 지원 방안



■ 이중언어 인식 제고를 위해서 먼저 다문화가족 내 인식 개선과 교육·보육기관의 이중언어 인식 제고를 위한 방안을 제안함.

- ◆ 대상기관을 확대하여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에 다문화 교육 강사 또는 이중언어 강사를 파견하고, 부모 및 가족을 대상으로 이중언어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음.
 - 다문화 가족구성원에 대한 이중언어 인식개선 교육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족센터3))를 중심으로 실시되고 있으나, 센터 중심 사업만으로는 사업 규모를 확대하기 어려운 상황임.
 - 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한국건강가정진흥원과 교육청 간에 협력과 부처 간 협력이 요구됨.
- ◆ 교육·보육기관이 다문화가족의 이중언어 사용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나 실질적인 지원은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된 바, 교직원을 대상으로 한 이중언어 이해교육이 필수적으로 시행될 필요가 있음.

3) 「2021년 가족사업 안내」개정에 따라 2021년 10월 13일부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명칭이 가족센터로 변경됨.

- 어린이집 및 유치원을 통해 다문화 아동 및 부모가 이중언어 관련 상담을 받거나 서비스를 연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교직원의 이중언어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양성교육이나 보수교육 과정 중에 이중언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시켜야 함.
- 출신국별 자조모임 지원 서비스를 이용한 부모의 자녀가 가정 내 이중언어 사용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자조모임은 이주민 부모의 중요한 지지 자원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자조모임 연계 사업을 제안함.
 - ◆ 출신국별 자조모임-교육·보육기관-가족센터 연계 사업: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족센터)가 출신국별 자조모임의 이중언어 관련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고 지역 내 교육·보육기관을 기반으로 자조모임을 확대하는 방안을 제안함.
 - 자조모임의 자율적 성격을 보장하되, 센터를 통해 자녀의 이중언어 발달 및 활동에 대한 기본적인 가이드를 제공하고 충분한 활동자료를 제공해야 함.
 - 교육·보육기관은 다문화 부모가 자조모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영유아기 부모-자녀 상호작용에 대한 기본적인 안내 및 지침을 제공할 수 있음.
 - 출신국별 자조모임을 활용하면 이주민 부모의 주도성을 활용하게 되면서 스스로의 역량강화를 도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며, 가정 내에서 자녀의 이중언어 사용 지지 및 지도에 대한 강한 동기부여가 가능함. 또한 자조모임을 토대로 지역 내 다양한 네트워크 확장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사업의 확장성뿐만 아니라 지속가능성도 제고할 수 있음.
 -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및 다문화교육센터 등 개별 센터에서 다양한 소수 언어를 모두 반영하여 출신국별 전문인력을 배치하기 어려우므로, 출신국별 자조모임과 센터를 연계하여 사업을 실시하게 되면 출신국별 차이 및 개별적 욕구를 반영하는 데에 유용함.
- 다문화가족의 이중언어 사용을 위한 맞춤형 지원을 위해서 실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는 이중언어 실천 부모교육 실시와 민·관·학 협력을 기반으로 하여 가정 내에서 활용 가능한 수준별 모국어 교재교구 개발 및 지원을 제안함.
 - ◆ 다문화 영유아를 둔 부모가 실생활에서 활용 가능한 이중언어 실천 부모교육을 구체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음.

- 자녀에게 이중언어 사용 동기부여 방식이나 다양한 상황별로 적용할 수 있는 이중언어 실천 방법을 구체적으로 교육하여야 하며, 자녀와 함께 상호작용하면서 실행해볼 수 있는 실천 심화교육도 제공할 필요가 있음.
- ◆ 교재교구 개발 경험이 있는 민간 교육기업과 학계 자원을 활용하여 민·관·학 협력 형태로 체계적인 교재교구 개발이 요구됨.
 - 다문화 영유아를 둔 부모가 가정 내에서 자녀에게 이중언어를 지도하고 상호작용하면서 쉽게 적용하기 위해서는 자녀의 발달단계별로 활용가능한 모국어 도서 및 교재 지원이 필요함. 이를 위해서는 교재교구 개발 경험이 있는 민간 교육기업과 학계 자원을 활용하여 민·관·학 협력 형태로 체계적인 교재교구 개발이 요구됨.
- 다문화 영유아를 둔 부모 및 교육·보육기관 교사들이 활용할 수 있는 이중언어 관련 정보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 통합 온라인 홈페이지 개설과 적극적인 온라인 활용을 통한 이중언어 교육 확대 방안을 제안함.
 - ◆ 이미 여러 기관이나 온라인 사이트에서 제공되고 있는 다양한 자료나 정보가 있으나, 정보 접근성이 낮아서 활용되지 못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누구나 손쉽게 이중언어 관련 자료를 검색하고 이용가능한 통합 온라인 홈페이지 운영을 제안함.
 - ◆ 온·오프라인을 모두 활용하여 이중언어 교육 및 지원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스마트폰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이중언어 관련 교육용 앱을 개발하여 활용할 수 있음.

| 참고 문헌 |

정해숙·김이선·최윤정·박현선·장명림(2014). 다문화가족 이중언어 환경조성사업 실행방안 연구. 여성가족부.

최윤정·김이선·선보영·동제연·정해숙·양계민·이은아·황정미(2019). 2018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 조사 연구. 여성가족부.

Abdelilah-Bauer, B. (2016). 이중언어 아이들의 도전. 박찬규(역). 서울: 구름서재.